

#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박차

### 무주군, 올해 23억8000만원 투입 유기질비료 107만6000여 포대 공급

무주군이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올해 총 사업비 23억8천만 원(국비 보전금 6억 1천만 원, 군비 17억7천만 원)을 투입해 유기질비료 107만 6천여 포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7만 2천여 포대보다 40여 만 포대가 증가한 규모이다.



무주군이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올해 총 사업비 23억8천만 원을 투입해 유기질비료 107만 6천여 포대를 공급한다.

무주군은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의 유기질비료 3종(9만여 포대)과 가축분 퇴비, 퇴비 등의 부속 유기질비료 2종(98만 6천여 포대)을 구입비 등급에 따라 3,774농가(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및 농지)에 공급할 예정이다.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표준 지침에 따르면 국비 보전금으로 포대(20kg)당 7백 원~1천 원을 지원하고 시·군비로는 포대 당 6백 원 이상 지원이 가능해 1천 3백 원~1천 6백 원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무주군은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 등급에 따라 8백 원~1천 1백 원을 지원, 총 1천 8백 원~2천 1백 원까지 뒷받침해 줄 방침이다.

무주군이 지자체 협력 사업의 일환

으로 농협과 함께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축분 퇴비는 포대 당 1천 원에 공급할 계획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협에서는 이를 위해 6억 2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임인택 팀장은 “유기질 비료는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지력을 증진시키고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많은 어

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10억 원의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 투입을 하는 것인 만큼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봄철 영농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초까지 신청을 받은 유기질 비료는 최종 배정 물량에 따라 1월부터 관할 지역농협이 농가에 순차적으로 배달 예정이다.

/무주=전문선기자

## 진안고원물 설 명절 특별판매 이벤트 성황리 마무리

### 20여개 농식품 생산자 25종 상품 통해 5700여만원 매출 성과 거뒀

진안군은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2주간 진행된 2022년 설 명절 특별판매 이벤트 행사가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내외 군민 등의 주머니 부담을 줄이고 관내 농가 및 업체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이번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20여개의 관내 농식품의

생산자가 25종의 상품을 통해 5,700여만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설 명절 특별할인 이벤트에 참여한 농가 및 업체의 상품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네이버쇼핑 라이브를 통해 릴레이 라이브커커스를 진행했으며, 1시간 남짓한 시간동안 700여명이 해당 방송에 접속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군은 이번 이벤트 홍보를 위해 군 공식 홈페이지와 SNS는 물론 진안군과 결연을 맺은 서울 강동구 등 자매

우호 도시 홈페이지, 재경 향우회 밴드,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전개하고, 관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명절선물 공동구매 권장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밝혔다.

전춘성 군수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 첫발을 내딛은 진안고원물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 농가와 업체들의 온라인 시장 확대와 상품관측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과수 화상병 예방 방제약제 지원

장수군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과수 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약제를 지원한다.

과수 화상병은 감염 시 식물 전체가 말라 죽어 수확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전염력이 강하고 치료제가 없

어 발생 나무 반경 100m 이내는 전량 폐기해야 해 농가소득에 치명적이다.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예찰을 통한 의심 껍질 가지 제거와 적기 방제약제를 해야 한다.

이에 장수군은 총 3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는 10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총 3회에 걸쳐서 생육시기별 적기방제를 위한 약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농가에서는 방제약제를 수령해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개화기 전 1회, 4월 하순부터 5월 하순까지 개화기 중 2회, 총 3회 방제를 실시하고 약제 방제 확인서와 약제 봉지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장수=고관호기자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의 축제위원회는 지난 4일 주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나섰다.

##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축제 만전

### 축제위원회, 총회 갖고 준비 나서... 3월 11일 온라인 진행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축제가 오는 3월 11일 온라인 축제로 소비자들을 찾아간다.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 축제위원회는 지난 4일 주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나섰다.

이번 총회에서는 축제 기본계획과 예산 집행계획을 확정·승인했다.

특히 온라인 축제로 개최되는 만큼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했다.

올해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축제는 3월 11일 하루만 온라인 축제로 진행하며, 코로나19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현장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사전 접수를 통해 신청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월 중 고로쇠 채취 체험행사만 진행한다.

또한 고로쇠 판매 독려를 위해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판매한다.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는 일교차가 큰 운장산 자락에서 평균 해발 400m 이상 고지대에서 생산되어 맛과 영양분이 풍부하며, 정제기를 통해 더욱 깨끗하게 고로쇠 품질을 유지·관리하고 있기에 타 지역 생산품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축제 역시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1시간 1대표 작은축제)로 선정돼 도비 1,20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진안군의 특색 있는 소규모 축제로 육성돼 해마다 발전하고 있다.

남규현 고로쇠축제 위원장은 “옛날 선조들은 경칩을 전후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는 고로쇠를 먹으며 건강을 챙겼다”며 “이른 봄에만 마실 수 있는 고로쇠를 마시며 봄의 기운을 받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추진

무주군은 농가들의 영농 및 인력난 해소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무주군 농·특산물 생산·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등이 대상이다.

희망지는 오는 28일까지 생체농산물 포장재는 농협과 영농조합에서 가공식품 포장재는 각 읍·면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4월중 선정된 대상자들은 골판지상자, 플라스틱 용기, 지대, 라벨, 스티커, 소풍백 등의 포장재를 50% 지원받을 수 있어 영농비 부담을 덜게 된다.

생체농산물 포장재는 1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경영체등록증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가공식품 포장재는 공통사항 서류(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또는 유통전문 판매업영업신고증,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외에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매입신고서·매입원장,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추가로 증빙, 제출하면 된다. 3백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통사항 서류만 증빙·제출 시에는 2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가공유통팀 운수진 팀장은 “농가들의 포장에 대한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좀 더 많은 중소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 폭도 늘렸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 강조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지난 4일 화재 위험과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을 강조했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위·아래·옆집에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모두가 함께 생활 속에서 화재 예방을 실천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초기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소화기 비치, ▲소화기·유내소화전 위치 파악 및 사용법 숙지, ▲화염과 연기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외출 또는 미사용 시 가스불·전기불 전원 차단하기 등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화재가 확산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코와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등 올바른 화재 대피 방법을 알아둬야 하고 경량칸막이와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해 집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안=우태만기자

#### 남창희 롯데슈퍼 대표이사 장수군 농축산업 발전 모색

장수군은 남창희 롯데슈퍼 대표이사사와 임원들이 장수군을 방문해 지역의 농축산업 현황을 살피고 상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들은 먼저 장수군 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프로젝트인 ‘농산물 스마트 유통센터’에 대한 추진현황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 청과물 가공 포장시설 견학하고 함께 장수군 농산물의 유통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장수한우지방공사를 방문해 장수군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현황을 논의하고, 장수한우 유전자 뱅크와 연구소, TMR사료센터 생산 현장 등을 둘러보며 장수군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장수=고관호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